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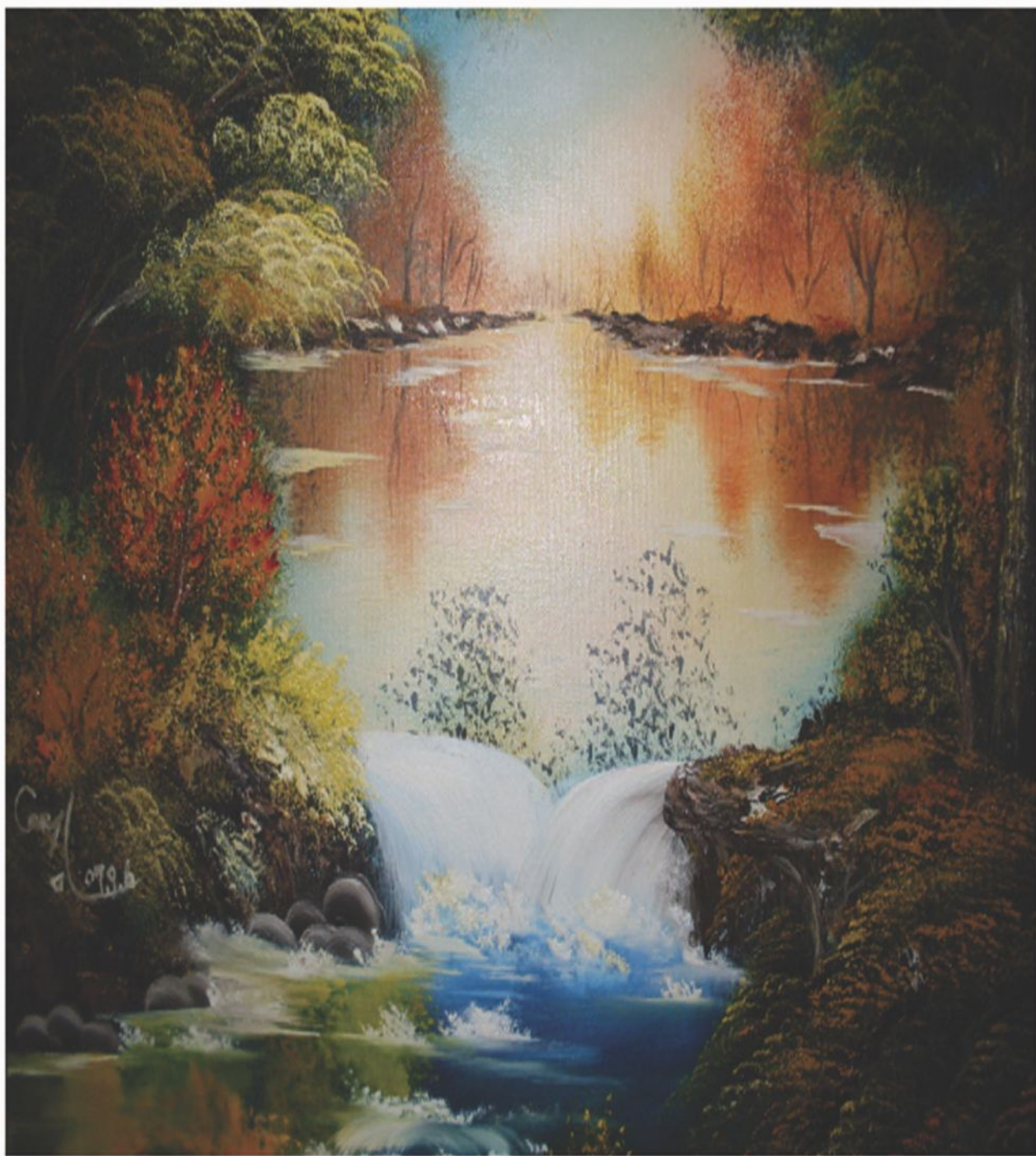


그림 / 밥로스미술 강사 김미라

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계절의 변화 또한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.
봄과 여름에 어떻게 가꿨냐에 따라 가을을 웃음으로 맞이하는 사람과 씁쓸함으로
맞이하는 사람이 결정 됩니다. 이번가을이 씁쓸하셨다면 내년 봄을 미리 기약하여
신이주신 가장 공평한 선물 시간을 아름답게 가꾸시길...